

경동맥을 침범한 악성종양에서 선택적 경동맥결찰술

조정일 · 김영모 · 한창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학교실

배경 : 두경부에서 발생한 침윤성 악성종양의 수술을 계획할 때 경동맥의 침윤여부에 대한 술전검사는 경동맥 결찰 후 일어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를 예방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술전 검사로 CT, MRI, Ultrasound, Angiography, Balloon occlusion with EEG, Brain SPECT or Xenon washout 등이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목적 : 저자들은 경동맥결찰술을 시행한 환자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선택적 경동맥결찰술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최근 1년간 본원에서 시행한 5례의 경동맥결찰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술전에 시행한 CT, MRI, Angiography 소견을 술후 경동맥 병리소견과 비교해 보았으며 술후 발생한 합병증 및 예후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결론 : 5례의 경동맥결찰술 후 1례에서 반신마비의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다. 술후 병리검사에서는 5례 중 3례에서만이 악성종양의 경동맥 직접 침윤을 보였다. 5례 중 3례에서 술후 3개월이내 사망하였는데 1례는 종격동 수술에 따른 대동맥 파열로, 2례는 경부 재발로 인해 사망하였다. 즉 술전 검사에서 의심된 악성종양의 경동맥 침윤에 대한 근치적 수술이 환자의 예후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양측 성대마비 환자에 대한 CO₂레이저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

최홍식 · 최영준* · 김성국 · 이용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배경 : 양측 성대마비는 임상적으로 흔하지는 않지만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 및 애성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치료로 많은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도확보와 만족할만한 음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수술방법은 많지않다.

목적 : 양측 성대마비의 수술치료 방법중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의 치료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저자들은 양측 성대마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CO₂ 레이저는 continuous 7-watt beam, superpulse mode를 사용하였다. 3명의 환자들의 술전과 술후 증상과 성대부위 단면적을 비교하였고, 1명의 환자에서 술전과 술후 공기역학적 검사결과를 비교하였다. 술전 기관절개를 시행하지 않은 1명은 술중 제트 인공호흡기(Jet ventilator)를 사용하였고, 술전 기관절개를 시행한 2명은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결과 :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부분절제술 후 3명의 환자 모두에서 호흡곤란이 개선되었고, 성대부위 단면적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술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1례는 수술중과 수술후에서 기관절개술이 필요하지 않았고, 술전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2례는 술후 발관이 가능하였다. 공기역학검사를 시행한 1례에서는 발성의 질이 약간 감소하였다.

결론 : 양측 성대마비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CO₂ 레이저를 이용한 피열연골 내측부분절제술은 피열연골 전절제술과 비교하여 술후 흡인과 후교련부 유착을 방지할 수 있고, 수술시간과 술후부종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기관절개술의 필요없이 발성의 질을 보존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술식으로 향후 더 많은 수술례를 통하여 객관적인 공기역학적 검사결과가 있어야하겠다.

후두암에 관한 임상적 고찰